

“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 신앙적 애국심이 강한 모범 크리스천이요 시인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라고 가르친 그가 동족을 위해서는 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을까? 자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운명에 처한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길로 치달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근심과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적 차원의 애국심을 가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국심과 차원이 다른 애국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애국심은 가질 수가 없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진정한 애국자라 할 수 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믿음을 가진 이가 민족 구원, 나라 사랑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 되는 길임을 확신하고 그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일이 애국하는 길임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흔히 애국심이란 국가라는 어떤 실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국가는 21세기에 사는 이들에게 공동이익 집단이다. 혈연, 지연, 이념을 말하나 나라 사랑이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천만을 누가 전부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애국심이다. 따라서 애국 또는 애국심은 사랑에 밀반침이 된 것이다. 동족으로부터 천대, 멸시, 핍박, 오해를 많이 받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 40명이 그를 헐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동족의 위협과 위험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 위해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시든가, 저들을 사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자로 동족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없었다. 모세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을 위해 이 같은 기도를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그들로 믿게 하려고 애쓰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고통 받는 복덕땅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번민해 본 적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가족, 친족, 이웃, 장애인, 타문화권 노동자, 노숙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학대 받는 북한의 동족 위해 고통을 느끼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저들을 돕고 사랑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이다. 환자를 사랑하면 그의 병이 내게로 옮겨올 수 있고 죄인을 사랑하면 나도 죄인이라는 같은 운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갈 때 그곳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따라갔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희생 없는 애국, 애국은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anathema) 즉 천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지언정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다. 바울의 애국심은 소망에 근거된 것이다. 사도는 자기를 죽이기까지 괴롭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 가능성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 구약에서 253회 반복 강조되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롬11:26)는 소망을 바울은 확실히 가졌다. 나라를 빼앗긴 어두운 시절에 윤치오는 하나님이 보우하시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지었고 남궁억은 3.1운동으로 전국이 피 냐새로 악취를 풍길 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비단실로 짜놓은 반도 강산)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했다. 유관순은 일본헌병대에 끌려가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남강 이승훈은 재판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주신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만세를 불렀다고 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본 이들은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도 미래에 주실 자유, 정의,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의 애국자다. 애국심은 위태로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동족을 위한 큰 근심과 고통을 당한 사도처럼 하나님 백성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한국장로신문 2013년 5월 4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름다운 가을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진행되는 사명자대회가 벌써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를 소망하며 오늘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한편,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구위원회의 특송이 있습니다.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등 다락방 일꾼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성령의 기쁨 부으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 수요일예배는 실시간 중계되지 않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1030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토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름,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달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7,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말씀 듣고 울고 말씀 듣고 기뻐하고 ”

■ 느헤미야 8:1-12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잘못된 교리, 도덕적 부패,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등으로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찬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사랑과 정의의 대행자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각종 비리의 몸통으로 전락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요구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경 중심의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수1:8)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수축 공사를 마친 후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고 제사장들이 말씀의 뜻을 설명하게 했는데 모두 말씀 듣고 울고, 말씀 깨닫고 기뻐했고, 말씀 따라 개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중심의 신앙공동체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 그들은 왜 모였는가?
 이 시기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귀환하여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습니다. 첫째 귀환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성전 재건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둘째는 에스라의 인도로 율법의 재반포와 신앙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가 느헤미야의 귀환인데 예루살렘 성벽 수축과 도시 재건이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단 52일 만에 완성하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신앙갱신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수축되었다 하여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신이 살아나고 정신과 가치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새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공사 후에 말씀 듣는 성회를 개최한 것은 바로 영적 부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문 앞 광장의 말씀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감동받고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우리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합니다.

2. 말씀 듣고 기뻐하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발견하고 감동되어 감사하며 울고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우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날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기뻐게 만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슬로건이 ‘오직 은혜’였습니다. 고행이나 수도생활이 자기 마음과 영혼을 더 결연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죄를 씻게 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종교적 열정이 문명세계를 만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죄를 씻는 것도 구원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일뿐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들던 모든 백성들이 깨닫고 발견한 것도 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용서 받았고 은혜로 이 땅을 얻었고 은혜로 포로생활을 견뎠고 은혜로 고국에 귀환했으며 은혜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울고 말씀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3. 말씀대로 개혁하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포로였거나 유대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이탈하여 세상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다보니 안식일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의 공공적 책임에 대하여 심각하게 교훈하고 실천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신앙과 교회 내부의 변화만이 아니라 제네바의 모든 구조와 활동을 성경말씀에 따라 개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이듯 우리도 우리의 수문 앞 광장, 말씀 앞으로 모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선포되고 나타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이강인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차영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장석남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96:4-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04 (종교개혁주일)...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585(384)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느 8:1-12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말씀듣고 울고 말씀듣고 기뻐하고"...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358(400)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교구위원회 헌신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오치열 장로,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131:1-3 인 도 자
찬 송	32(48) 다 합 께
기 도	한상준 집사
찬 송	220(278) 다 합 께
성 경	시 16:1-6 석춘희 권사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내게 맡기신 교구" ...	설 교 자
교구위원회 특송	말 은 이
* 찬 송	620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설교: 김익환 목사

기 도 ... I부: 정선경 권사 II부: 백영자 권사
 성 경 ... 빌 2:12-18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박수강 · 김복희2 · 이경희3
 설 교 ... 손달익, 조원영 목사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본당 2층
 설 교 ... 안용곤 목사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교 회 소 식

☛ 모 임

1. 디자인팀 월례회 / 30일(주) 오후 1시 30분 802호
2. 2교구 연합 모임 / 4일(금) 오전 11시 601호
3. 6교구 연합 모임 / 5일(토) 오전 10시 한국 기독교 순교자기념관(용인)

☛ 알 림

1.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 10분-11시
3.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6.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 10분 · 오후 12시 10분
7.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8.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 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 30분-5시
9.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0.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11.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 10분

☛ 결 혼

1. 김원준 군(9교구 김정훈 집사, 김희경 권사의 장남)과 신지선 양(신영삼, 차선옥 님의 삼녀) / 11월5일(토) 오후 12시 30분 더 라움 2층 마제스틱 볼룸 홀(02-538-3366) / 분당선, 9호선 선정릉역 4번 출구

새가족소개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채수진	1교구	바울	김순진	박희정	1교구	뵤뵤	김순진
채성현	1교구	초등부	김순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2.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번째 세례식인 12월 세례(세례, 입교, 개종, 유아세례)식이 12월 1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 세례 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 11월 12일(토)
 - 세례교육: 4주 교육(11/13, 11/20, 11/27, 12/4일) 낮 12시 20분 609호
 - 세례문답: 12월 4일(주일) 오후 1시 30분 609호
 -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 11월 27일(주일)
 - *입교와 유아세례 교육: 12월 4(주일) 낮 12시 20분 602호
 -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11명	555명	2,066명	318명	1,467명

기회를 선용하자

-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지혜요 힘이다. 지난간 다음에 애절한 탄식을 하는 것보다 주어진 때에 오용하거나 남용치 말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축복의 기회를 선용해야겠다. 소득이 늘어간다고 사치에 취해서는 안 되며 명성이 높아 가도 교만에 취해서도 안 되고 경권을 잡아도 권력에 취해서는 안 된다. 축복에 취하다 보면 실패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 봉사할 기회도 선용해야겠다. 남의 약점을 보았을 때는 그를 헐기 전에 그를 돕는 길을 찾는 것이 같은 약점을 가진 인간의 할 일이다.
- 용서할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 원수에게 저주를 퍼붓기 전에 이 때를 용서의 기회로 만들 수는 없겠는가?
- "주여! 기회를 잃는 것은 곧 영원을 잃는 것인가 하옵니다."
- 이종운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